

금요 수필

텃밭 농사의 즐거움

**토**요일 이른 아침, 나는 들깨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해 완산동 텃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막상 완산동에 도착하고 보니 호미를 두런리 산자락 끝의 밭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삼을 꺼냈다. 세상일이 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없으면 잊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삼으로 흙을 파고 모종을 하나씩 조심스레 옮겨심기 시작했다.

삼질로 들깨 모종을 뽐으려고 하니 호미로 하는 것보다 일은 서툴렀고 손놀림도 느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는 참 좋았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부드러운 흙이 손바닥에 스며들며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전해 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도, 복잡한 생각도 모두 흙 속으로 묻혀 버렸다.

내가 처음 텃밭을 가꾼 것은 2008년경이었다. 전주교도소 관사 옆 작은 빈터를 몇 평씩 분양해 주어서 그곳에 상추와 고추, 오이, 고구마 등 몇몇 포기를 심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농사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큼 적은 땅이었고 집사람과 함께하며 하는 농사일도 서툴렀지만, 흙은 그런 나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었고,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어느덧 열여덟 해가 흘렀다.

비교적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아직도 초보 농사꾼이다. 때마다 농사일을 하며 새로운 실수를 하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늘 배우게 된다.



이만호 수필가

올해는 7년이라는 제법 오랫동안 가꾸던 중년동 제법 큰 텃밭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아쉬움이 컸지만,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다. 지난 해 가을, 구이면 두런리 산자락에 있는 180여 평의 땅을 공매로 마련했다. 논이었던 그 땅은 산과 맞닿아 있어 밭매지와 고라니가 자주 출몰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곳으로 농사짓는 데는 부적합한 땅이었다.

집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곳에 건강에 좋은 열나무, 오가피나무, 꾸지뽕나무, 두릅나무 등을 심고 남은 땅에는 다들 농작물을 심기 위해 구입한 땅지의 땅이었다.

이웃 농사꾼은 고구마나 콩, 고추 등 산짐승들이 좋아하는 식물은 심지 말라고 권했다. 산짐승들이 사렵보다 먼저 수확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들깨를 선택했다. 들깨는 특유의 향 덕분에 산짐승들도 쉽게 건드려지 않는다. 여름이면 향긋한 햇빛으로 밭상을 채우고, 가을이면 들깨를 털어 기름을 짜고, 곱게 갈아 들깨탕을 끓인다. 그 구수한 맛은 시장에서 산 중국산 들깨를으로는 결코 흉내 낼 수 없다. 그 안에는 햇빛과 바람, 농부의 손길과 오랜 기다림과 땅이 함께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텃밭 농사가 남는 것이 있느냐고 내게 묻는다. 사실 계산한 해 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복합 비료 한 포대 값도 이만 사천 원이 훌쩍 넘고 씨앗과 모종, 퇴비, 오가는 승용차 기름값까지 보태면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나 텃밭 농사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내 손으로 키운 깻잎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 농약 걱정 없이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초록빛으로 자라나는 작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뿌듯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다.

흙은 사람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쏟은 정성만큼 조용히 되돌려 줄 뿐이다.

무엇보다 텃밭은 나의 건강을 지켜 주는 운동장이며,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병원이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 나에게 호미질과 삼질,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일은 최고의 전신운동이다. 흙을 만지며 흘리는 땀은 몸의 피로만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응어리까지 녹여 준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친구다.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힘든 농사를 계속 짓느냐고 묻는다. 나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나에게 텃밭은 노닐기 아니라 쉼이고, 경쟁이 아니라 행복이며, 수확보다 기다림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작은 잎이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게 느껴진다.

오늘도 아는 형님과 함께 들깨 모종을 모두 심고 나니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 있었다. 허리는 빠르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다. 몇 달 뒤 초록 물결로 출렁이는 들깨밭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의 땅방울을 다시 떠올릴 것이다. 그때도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서툰 농사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농사는 잘하기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걸을 수 있는 날까지 나는 흙을 벗 삼아 텃밭 농사를 계속하고 싶다. 들깨 한 포기에서 생명의 신비를 배우고, 작은 씨앗 하나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싶다.

사람의 심장은 생명을 이어 주는 장이지만, 내게는 또 하나의 심장이 있다. 바로 텃밭이다. 텃밭은 지친 삶에 다시 피를 풀게 하고, 메마른 마음에 새싹을 틔우며, 오늘을 살아가길 용기를 준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두 손에 흙을 묻히고, 이미에 땅방울을 맺으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텃밭 마음속 응어리까지 녹여 준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기교문

“시민의 삶 살피는 책임있는 의회 만들 것”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뜻과 동료 의원님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제10대 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깊이 새기며 정읍시의회를 책임 있게 이끌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세상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살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나침반입니다.

협치 또한 서로의 입장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제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정읍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경기침체와 청년 유출,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행적인 사업과 반복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의장은 정읍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지리가 아닙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의회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와 정책 제안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 히 수행하도록 중심을 잡는 자리입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당과 지역, 선수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뜻을 존중하며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이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든 의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정책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견제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에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효과와 불분명한 사업과 불합

리한 예산,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농업과 소상공인 지원, 보육과 복지, 문화·관광, 재난·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열린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정실의 문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장

을 항상 열어두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책상 위의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아 시민의 삶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조려와 예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의회의 결정 과정과 의정활동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시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의회는 말 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예산의 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로 평가받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읍의 미래는 시민과 의회, 정읍시와 공직자, 지역사회 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 갈 때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의장이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원 모두가 존중받으며 역량을 발휘하는 의회, 견제와 대안으로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읍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자재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과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살갗은 마음으로 떠나는 휴가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휴가철에는 피서지와 관광지,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한다. 여기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의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

휴가철,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음주운전 근절’

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증가하는 만

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유흥과,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민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즐거운 휴가의 마지막은 안전한 귀가로 완성된다.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숙취가 남아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행복한 추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해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설

전북 행정구역 통합 문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 시군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기대감이 크지만, 단체장과 지역 간 입장차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 속에 해법으로 기대를 모아온 전북 기초 지자체 통합이다. 민선 9기에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완주·전주 통합'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엇박자가 감지된다. 지난 6월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주민 갈등을 우려해 "일기 내 무리한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공식화했다.

반면 조지훈 당시 전주시장 당선인은 도시 생존을 위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강조한다. 조 당선자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통합의 통합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세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합의해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김제 통합론'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질적인 생활권 연계나 경제성 분석 없이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시군 통합에 따른 효과와 우려를 면밀히 살피는 신중론에 힘이 실린다. 통합은 점체적인 행정 비용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의 체감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야 성공적인 통합이 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이견과 지자체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시군 통합, 민선 9기 통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 의혹

검찰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수 수색했다. 의료기기 업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해당 전직 보좌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령층 등을 위한 건강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의료기기 업체는 전국 병원 80여 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가 개발한 체계적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편의를 위해 '입법포기'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년 넘게 당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A 씨 측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해당 업체와 건

직 보좌관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영장에는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전직 보좌관 A 씨가 친인척 명의로 업체에서 허위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소속 의원실 정책토론회에서 업체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며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실은 해당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직 보좌관 A 씨는 "업체 대표와 개인적 친분은 있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서, "특정 업체만을 위한 토론회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측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최고과학기술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시진핑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과학기술자대회 결 중국과학원(CAS)·중국공학원(CAE) 회원 총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회를 마친 뒤 올해 '국가 최고과학기술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리튬 배터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리취안(오른쪽) 중국공정원 원사와 '펄스도플러 레이더' 기술 창시자로 평가받는 번더 원사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